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한민족의 거주공간이었으나 20세기 중반 한국전쟁의 발발로 남과 북은 현재까지 휴전상태로 분단국가를 유지해 오고 있다. 1990년 이후 동구권 사회몰락의 여파로 북한사회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했다. 이러한 북한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듯, 1990년대 후반부터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인구가 급증하였다. 남한 내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 집단양상은 점차 세대적, 젠더적, 계층적으로 다원화 되고 있으며(윤인진, 2000), 그 중 여성인구가 70%, 20-30대 북한이탈주민이 58%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2016).

남한에 입국한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학력중심사회인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대학진학을 하고 있다. 정부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방안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대학등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들의 입학정원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립대 기준 입학한 탈북대학생이 2006년 368명에서 2012년 1,397명으로 약 3배가량 증가했다(심윤조, 2012).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까지 추산한다면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진학증가는 남한사회 편입뿐만 아니라 배움에 대한 욕구와 자아성장에 대한 욕구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김진미, 2008). 청소년기 탈북으로 정상적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경험에 대한 보상일수도 있고, 청년기 꿈과 목표의 실현에 의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 앞으로 내적동기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진학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탈북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만큼

나 적응상의 문제로 중도탈락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등록금 지원으로 인해 사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했다가 경제적 어려움, 남한학생들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대인관계문제, 학업시스템과 방식의 차이로 인한 학업상의 어려움 등으로 중도 탈락하는 사례들이 급증하였다(유시은, 배형준, 조명숙, 김경희, 최영실, 2013).

탈북대학생들의 대학진학과 중도탈락의 비율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연구에 비해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이다(금명자, 2015). 탈북청소년은 청소년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증폭될 수 있다. 실제 그들은 북한과 상이한 남한의 또래문화, 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한다(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길은배, 문성호, 2003; 조영아, 전우택, 2004).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은 청소년기 정체성 발달과 맞물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아동·청소년기에 속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으로 대거 이주하였고, 그들이 성장하여 현재 상당부분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적응은 청소년기 학교적응과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첫째, 대학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역할전환이며 이것은 중요한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다. 대학생의 주요 스트레스원은 시험과 평가, 학점, 능동적 대인관계 등이다(Baker, McNeil, & Siryk, 1985). 둘째, 대학이라는 생활공간에서 주어지는 자유로움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지고 능동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발달적 과업을 지니게 된다. 탈

북대학생들은 학업 및 또래관계형성이라는 대학생으로서의 사회적 과업뿐만 아니라 북한과 상이한 문화와 교육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문화적응적 과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중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경험과 적응과정을 심층면접을 통해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한국으로 이주해온 탈북대학생들의 대학생활경험의 실체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대학생활적응과정 및 남한사회적응유형을 탐색하였다.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현재의 한국은 세계적으로 물질과 인구의 이동이 급증하는 흐름과 함께하고 있다. 과거 단일민족중심의 폐쇄성을 유지해오던 한국은 근래에 들어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다른 국가의 문화적응과 달리 역사·문화·지리적 특수성을 갖는다. 그 중 북한이탈주민의 유입 및 적응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수적 현상이자 이주민의 문화적응 보편성을 공존하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몇 가지 이유로 이주민의 문화적응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우선, 이들은 탈북 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위협이 되므로 북한으로 돌아가기란 사실상 어렵다(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 2007). 게다가 1990년대 이후 탈북자들은 생계형 탈북으로 살길을 찾아 탈북한 ‘난민’으로 여겨진다(김희겸, 2012). 실제 이들의 탈북과정은 전쟁, 이념으로 인한 난민들이 경험하는

바와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Murphy, 1997). 탈북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비자발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머무르기도 하고 머무르는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아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최대석, 조은희, 2010). 현재 남북은 분단국가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과업일 수 있다.

두 번째, 남과북은 정치적 이념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다르기 때문에 주류문화인 남한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민주주의에 동화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념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재정적·복지적 원조를 제공한다. 적어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민주주의 이념 및 파생되는 문화적 관점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그러나 남한 입국 이후 북한이탈주민을 스스로 적응해가는 주체적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이주민적 삶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탈북자의 이주과정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해석되는 이주의 경험은 트라우마가 되기도 혹은 인생의 자원 혹은 의미가 되기도 한다(김희겸, 2012; 윤지혜, 오영림, 2010). 또한 탈북자들은 유동성을 갖는다. 그들은 남한사회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대안으로 제3국이나 중국 등 다른 사회로의 이동을 염두하고 있다(박은미, 2009). 이는 이주민의 초국가적 특징이 탈북자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장수현, 2010).

주류사회가 요구하는 바와 달리 특정 이념 및 문화를 수용하는가의 여부는 결국 당사자

의 묶에 달려있다(Berry, 1990, 1997). Berry는 이주자가 기존문화를 유지할 것인가, 주류사회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 문화적응전략을 구분하였고,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유형화 하였다. 국내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연구 상당수는 Berry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금명자, 2015; 한나, 이승연, 2015).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과 문화적응유형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분리, 동화, 통합, 주변화 순으로 높았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 유형 순으로 높았다(채정민, 이종한, 2004).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합 유형이 가장 적응적일 것이라는 Berry의 입장과 달리(Berry, 2003), 남한사회를 적극 수용한 동화 유형이나 북한문화만을 고수하는 분리 유형의 적응이 더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주민의 이주문화수용은 주류문화와 소수민족 간 상호이해와 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Kurman, Eshel, & Zehavi, 2005). 주류사회구성원이 기대하는 소수민족 집단의 문화적응은 소수민족집단의 문화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urhis, Barrette, & El-Geledi, 2009). 남한사람들이 남한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기대하는 적응전략에 대한 명시적 연구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남한사람들이 북한과 북한사람에 대해서 갖는 인식연구들이 있다(양계민, 정진경, 2005; 윤인진, 송영호, 2013). 일반적으로 남한사람들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는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탈북자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거리감도 탈북자를 가장 멀게 지각하였다(김동수, 김도환, 정태연, 2011; 김혜숙, 2007). 그 중 북한사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은 경우 연민과 불쌍함의 감정을 더 느꼈고(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사람과 대북

에 대한 정책의 태도에 대해서는 북한사람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크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숙, 2002). 전반적으로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과 피상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는 가능하나, 친밀한 집단관계는 기피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윤인진, 송영호, 2013).

한편, 탈북자들은 문화적 소통방식이 달라서,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남한 사람들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고(신효숙 등, 2014), 실제 남한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편견은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이는 탈북자들이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것과 남한사람들에게 같은 국민으로 인식되는 것과는 괴리가 큼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험은 북한이탈주민이 주체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한국사회는 탈북자에게 문화적 분리 내지는 동화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을 문화적응의 주체자인 이주민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을 통한 남한사회적응전략을 이해하고자 한다. 탈북대학생이 남한의 대학생활경험을 통해 자신과 남한사회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탈북대학생의 남한사회적응전략의 구체적인 양상을 참여자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발달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Erikson의 심

리사회적 발달이론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정체성 확립 대 정체성 혼미’ 발달과업에 직면한 시기였다. 대부분의 탈북대학생들은 이 시기 북한사회의 경제난과 교육의 와해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탈북과정에서 불안정한 체류생활에 직면해야 했다(이순형, 등 2007). 이는 정체성확립의 유예로 이어졌을 것이다. 게다가 탈북대학생들은 대학입학과 동시에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는 새로운 발달과업도 직면하게 된다. 타인과의 친밀함을 형성함으로써 인간적 성숙을 도모해야 한다.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되거나 자기몰두에 빠지게 된다(정옥분, 2000). 실제 탈북청소년 및 대학생들은 남한의 또래 친구들의 유대감 및 공감대 부족, 언어 및 사고의 차이로 인하여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이순형 등, 2007; 정병호, 2004). 하지만 사회적 지지는 탈북대학생의 사회적응을 돕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볼 때 발달과업의 수행이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증명한다(강희석, 2007; 김진미, 2008; 김현아, 2006; 이해경, 2003).

탈북대학생은 발달과업과 더불어 대학생으로서 대학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사회적 과업이 있다. 대학생이 된다는 것 자체는 역할전환이며 이것은 중요한 스트레스원이 된다. 게다가 수업과 시험, 평가 등은 중요한 스트레스 원이 된다(한덕웅, 전경구, 이창호, 1991). 탈북대학생의 경우 남한의 교육방식은 북의 교육방식과 상이하고, 외래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 탈북대학생의 대학적응은 어떠한가? 최근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활에서 애로사항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51.4%로 과반수를 넘

었고 구체적으로 경제적 문제, 학업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하였다(홍정욱, 2010). 학업적 부족은 외국어(영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언어 및 논술 교육이었다. 탈북대학생의 평균 학점은 2.42로 학업적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탈북대학생의 입학률이 증가하지만 휴학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탈북대학생의 휴학율은 국내 대학생보다 약 3배정도 높은 수치이다(홍정욱, 2010). 휴학하는 주요한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대학에서 등록금의 50% ~ 100%를 지원하고 있지만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가 필요하므로 경제적 문제의 어려움은 여전히 유효하다.

남북한의 교육시스템의 차이와 탈북과정 중 학습의 공백 역시 대학생생활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들은 남한과 북한의 교육방식 및 교육수준의 차이 때문에 위축감을 경험한다. 자기주장식 논술을 학습해본 적이 없어 논리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운 문제,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등이 학력 수준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축감을 유발한다(유시은 등, 2013).

한편 대인관계 부적응도 발생한다. 남한에 가면 민족의 일원으로서 환영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정함,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무시, 경멸 등으로 인해 남한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정병호, 2004). 자유로운 대학의 분위기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데다 탈북대학생에 대한 남한대학생들의 편견 등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최윤진, 나달숙, 김윤나, 한순영, 손진희, 2013).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탈북청년의 대학진학의 길은 다소 쉽게 열려있으나 대학 내에

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가의 문제는 별개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 과정을 질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에 의하면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주변사람들의 조언과 도움, 자기통제, 노력 등을 통해 환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탈북 대학생들은 남한사회의 동화압력을 받지만 전략적 주체가 되어 순응과 저항, 타협하며 적응하고 있다(권나혜, 2007; 김진미, 2008; 장선하, 2008; 조영아, 전우택, 2004). 나아가 남한과 북한의 정체성을 자신의 입장과 삶의 방식에 맞추어 받아들임으로서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해나감을 보여준다(최대석, 조은희, 2010). 탈북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결과물들은 대학생활경험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미시적-거시적 측면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질적인 접근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선행 질적 연구들은 적응과정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발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탈북대학생의 적응과정을 인과적 순서에 맞춰 체계적으로 생성된 질적 결과물이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근거이론 방법론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대상자 중심의 귀납적 이론을 발견 및 발전, 부분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0). 질적 결과물을 토대로 양적인 변인구성을 통한 통계적 검증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탈북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남한사회의 적응양상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화심리학적 질적 연구는 이론이 현실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구성되고 특정현상에 관한 자료들의 검토에 의해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다(최상진, 한규석,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근거이론접근을 활용하여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경험과 행동적 대처전략 및 이러한 경험과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다음 탈북대학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학생활경험과 대처전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변화과정에서 기여하는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탈북대학생이 대학생활적응을 통해 평가한 남한사회적응을 확인하기 위해 적응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방 법

근거이론방법론

탈북대학생들이 남한 내 대학생활을 경험했던 현상의 본질과 적응의 인과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근거이론적 접근은 유용할 수 있다.

근거이론방법론은 현장에서 얻어지는 참여자들의 자료를 통해 심리-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론을 생성하는 질적연구방법론이다(Glaser & Strauss, 1967). 이 방법은 경험적 현상에서 근거를 찾고 이에 적합한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을 통해 귀납적 결론을 이끌어낸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즉, 얻어진 자료의 문맥을 통해 발견된 범주의 기술뿐만 아니라, 범주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귀납적 이론을 구성한다(Strauss & Corbin, 1990).

이러한 관점에 의해 현상의 추상적 구조를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번호	성별	연령	대학	학년 학기	탈북 시기	제3국체류 (기간)	남한 입국시기	남한 체류기간	탈북 구성원	현 동거가족	북한이탈동기
1	여	23세	A	2-2	02.99'	중국(6년)	04.02'	6년	가족	어머니,오빠	경제적 문제
2	여	31세	A	2-2	01.00'	중국(2년)	01.03'	5년	가족	어머니,남동생	정치-경제적 문제
3	여	22세	A	1-2	08.04'	중국(11개월)	08.05'	3년	어머니	어머니,여동생	정치적 문제
4	여	19세	B	1-2	12.98'	중국(8년)	04.06'	2년	어머니	어머니	부모님 결정
5	여	29세	A	2-2	02.06'	태국(2개월)	01.06'	2년	단신	아버지,남동생	가족의 인도
6	남	24세	C	3학년휴학	07.99'	중국(5년)	05.04'	4년	단신	단신	공부하고 싶음
7	여	21세	A	3-2	03.99'	중국(3년)	09.02'	6년	어머니	어머니	식량난
8	남	25세	A	2-2	12.96'	중국(9년)	11.05'	3년	가족	가족	정치적 문제
9	여	20세	A	1-2	01.02'	중국,미얀마(8개월)	09.02'	6년	가족	가족	부모님 결정
10	여	30세	A	3-2	04.04'	중국,몽골(3개월)	09.04'	4년	여동생	가족	가족의 인도
11	남	23세	A	2-2	08.00'	중국(3년)	01.04'	4년	단신	가족	식량난
12	남	21세	A	1-2	08.98'	-	08.00'	8년	가족	어머니,남동생	경제적 문제
13	남	21세	D	2-2	09.05'	몽골(2개월)	11.05'	3년	여동생	가족	가족의 인도
14	여	30세	D	2-2	12.98'	중국(5년)	09.04'	4년	언니	단신	경제적 문제
15	남	24세	D	3-2	01.01'	-	07.01'	7년	남동생	가족	식량난
16	여	26세	D	2-2	08.05'	중국(일주일)	11.05'	3년	어머니, 남동생	가족	할아버지고향
17	여	26세	D	1-2	08.03'	중국(3년)	04.06'	2년	단신	단신	정치-경제적 문제
18	남	25세	D	3-2	01.98'	중국(5년)	11.02'	6년	단신	친구	식량난
19	남	22세	D	3-2	02.03'	중국(2년)	08.03'	5년	단신	어머니,누나	부모님 결정
20	남	23세	D	2-2	01.05'	중국(1년)	02.07'	1년	고향친구	단신	경제적 문제
21	여	27세	D	3-2	04.04'	중국(3개월)	09.04'	4년	언니	어머니	가족의 인도
22	남	26세	D	3-2	06.02'	중국,태국(3개월)	12.02'	6년	어머니,누나	어머니	정치적 문제
23	남	32세	D	3-2	02.94'	중국,러시아(4년)	11.02'	6년	단신	가족	정치적 문제
24	남	30세	D	3-2	03.98'	중국(7년)	10.04'	4년	단신	단신	식량난
25	여	22세	D	1-2	07.97'	중국(6년)	03.04'	4년	가족	가족	부모님 결정
26	여	24세	D	3-2	12.01'	중국(1년)	04.03'	5년	동생	동생	경제적 문제

발견하게 되는데, 정확한 개념과 구조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나 명료화되지 않은 현상을 명료화시키는 데 유용하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 근거이론을 접목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용할 수 있다.

첫째, 탈북대학생 집단의 적응과정과 적응

적 특성을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구성하기보다 탈북대학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개념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Bruner, 1990).

둘째, 탈북대학생의 적응에 대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 현상은 드러났으나 현상의 체계적인 인과적 분석을 질적으로 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백영옥, 유조안 2011).

근거이론은 탈북대학생이라는 특정 집단의 학교적응경험을 정서와 행동의 인과성, 적응 상의 시간적 변화를 귀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구조적인 틀을 제공해줄 수 있다.

연구대상

연구참여자 선정은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의 본질을 탐색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적절한 대상자를 표집하는 것이 중요하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탈북하고 남한에 입국하여 현재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휴학 중인 20~30대 대학생으로 제한하였다. 이들은 경제적·정치 외교적 악재가 있는 북한사회에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거나 제3국에서 체류생활을 하며 불안정한 아동·청소년기를 보냈고, 현재 청년기를 남한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독특한 경험을 가진 집단이다(윤지혜, 오영림, 2010). 둘째, 남한에서 거주한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최소 반 학기 이상 학교를 다닌 탈북대학생으로 제한하였다. 이주자의 적응에 관한 문헌을 고찰해볼 때, 새로운 문화적응에 따른 정체감 형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최소 1년 이상의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장창호, 2000; Atkinson, Morton, & Sue, 1998)¹⁾ 셋째,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대학생으로 제한하였다. 탈북대학생의 일반화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탈북대학생의 약

70%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통일부, 2016), 표집의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총 연구참여자는 26명으로 남성은 12명, 여성은 14명이다. 연령의 범위는 19세부터 32세이며, 평균은 24.85세이다. 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는 A대학교 10명, B대학교 1명, C대학교 1명, D대학교 14명이다. 학년은 2학년 9명, 3학년 10명이 주를 이루었다. 탈북 시 제3국에 체류한 참여자는 모두 24명으로 그 중에 중국체류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은 브로커를 통해 바로 남한으로 입국하였다. 탈북 당시 탈북구성원은 단신 8명, 가족 6명, 형제자매 6명 등이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은 가족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북한이탈동기는 식량난과 경제적 문제가 5명씩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정치적 문제, 부모님 결정, 가족의 인도가 4명씩이었고, 정치·경제적 문제 2명, 공부하고 싶음, 할아버지 고향이기 때문이 각 1명씩이었다.

연구절차

참여자표집은 눈덩이표집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진 대학 내 동아리나 교회모임, 학생회 등을 통하여 모임에 참여하는 탈북대학생을 개인적으로 소개받았고, 참여자를 통해 주변 탈북대학생을 소개받았다. 특히 D대학 내 탈

2) 근거이론의 적정 참여자수는 최소 20명이다. 그러나 몇 명의 참여자와 인터뷰를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몇 명과 인터뷰했는가가 아니라 해당 참여자들로부터 다양한 개념을 추출해 내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근거이론방법론을 이용한 연구자들의 반복적 경험에 의하면 20~30명 정도면 충분한 개념을 추출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Strauss & Corbin, 1990).

1) 본 참여자 가운데 대학생들이 만 1년 채 되지 않는 참여자가 있으나 대학생활적응초기의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제외시키지 않았다

북대학생모임의 대표인 참여자 15는 질적연구를 위한 ‘문지기’로서 다수의 참여자들과 접촉하게 된 주요 매개원이었다(Glesne, 2003).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연구진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약 한 학기 정도를 탈북대학생 모임에 참여하여 같이 활동하거나 수업을 함께 청강하고 식사자리를 갖기도 하였다.

면접은 2008년 9월 ~ 12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면접장소는 참여자가 편하게 생각하고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카페 혹은 교정, 세미나실, 동아리실 등을 이용하였으며 면접 시간은 평균 2-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을 실시하기 이전에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고, 면접 중간에도 얼마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참여자와 연구자는 면접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면접동안 연구자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기, 컴퓨터, 면접지 등을 활용하였고, 녹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전사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면접 말미에 면접에 대한 느낌과 소감을 표현하도록 하였고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차후에 다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주변의 탈북대학생 친구들을 소개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면접이 끝나고 난 뒤 참여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현금 만원과 오천원 상당의 usb를 선물로 지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예비면접과 본 면접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예비면접은 3명의 참여자들에게 ‘남한사회와 대학생활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가’라는 비구조화된 질문을 하였고, 응답을 얻었다. 예비참여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본 면접을 위한 반구조화 질문을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면접 시 질문은 ‘대학에 입학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대학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나?’,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나?’, ‘현재 남한사회생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참여자를 선정하고 만나는 과정은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의 방법을 따랐다(Strauss & Corbin, 1990). 이는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현상을 최대한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 안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다. 근거이론방법에서는 면접과 분석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분석을 통해 생성된 범주를 잘 설명하거나 보완할 표집대상으로 좁혀진다(Strauss & Corbin, 1998). 표 1에서 제시한 참여자 번호는 면접을 실시한 순서에 따른 번호이다. 앞에 면접을 실시한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반구조화식의 면접을 실시하여 포괄적 내용을 수집하고 뒷 번호의 참여자일수록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분석에서 생성된 범주 간 관계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나 범주가 형성되지 않고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Strauss & Corbin, 1990).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한 방법을 부분적으로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연구원 1명과 박사과정 연구원 1명이 독립적으로 분석을 실시한 후 개념의 일치정도를 확인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정기적인 연구미팅을 가지면서 상이하지 않은 개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데

이터를 텍스트화 즉, 녹취된 모든 면접 내용을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했다. 텍스트량은 참여자 당 A4 용지로 약 10매 ~ 30매 정도 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료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범주화분석. 본 분석은 개방코딩(open coding)과 축코딩(axial coding)을 통해 진행되었다(Strauss & Corbin, 1990). 우선 개방코딩을 실시하는 데, 이는 심층면접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읽어가며 문장단위 분석을 통해 나타난 현상을 명명(labeling)함으로써 개념을 도출해 낸다. 명명된 개념들 간의 지속적인 비교과정을 통해 유사한 개념들을 범주화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이때 각각의 개념들은 추상적인 수준으로 개념화된다(Strauss & Corbin 1990). 개방코딩은 타 질적 연구의 개념 범주화 과정과 유사하다(Flick, 2009)

그 다음 축코딩 단계이다.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해 낸 범주들을 속성과 차원에 근거하여 축패러다임에 맞게 재구성한다(Strauss & Corbin, 1990). 축은 여섯가지 조건으로 구성된다: 중심현상(대학생활의 중심경험), 인과적 조건(대학에 들어가게 된 동기), 맥락적 조건(탈북대학생이 중심현상을 경험한 심리-사회적 맥락), 작용/상호작용(중심현상을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행동), 중재적 조건(중심현상과 작용/상호작용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결과(적응의 결과). 즉 축패러다임은 개방코딩을 통해 발견된 범주 간 유사점과 차이점, 인과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축패러다임은 어떠한 현지상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구조를 밝혀낼 수 있고,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 연결을 확인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도 있다.

과정분석.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전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양상을 살펴보고, 각 단계별 적응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과정분석은 축패러다임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변화하는 양상을 추적한다. 행동은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Strauss & Corbin, 1990). 즉, 행동은 특정한 상황적 맥락 및 조건에 의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난 행동들은 다시 상황적 맥락의 일부가 되어 현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또 다른 행동전략으로 발전 혹은 유지되기 때문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러한 분석방법은 경과나 추이를 조사하는 연구에 적합하며 특히 발달이나 사회화 과정, 이주 및 문화적응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Strauss & Corbin, 1990).

과정분석을 위해 축패러다임을 시간적 순서에 맞게 재배열하였다. 참여자 개개인의 범주화된 데이터를 다시 점검하면서 각 참여자의 시계열 상 가장 처음 제시한 중심현상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작용/상호작용을 찾아내고 이 때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친 맥락적 조건과, 중심현상-작용/상호작용 관계에 영향을 미친 중재적 조건을 찾아내었다. 각 참여자 데이터의 중심현상과 작용/상호작용의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나열하면 모든 참여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상의 공통범주가 드러나게 된다. 이때 중심현상-작용/상호작용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모두 제시해야 하고, 단계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나 작용 역시 모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Strauss & Corbin, 1990).

유형화분석. 어떠한 행동은 순서에 따라

변화하지만, 특정시점에서 특정 조건과 결합되면 행동전략은 유지된다. 유지된 행동은 결과로서 드러난다. 따라서 축패러다임 중 결과 범주에 따라 참여자를 구분하고, 구분된 참여자들의 공통된 특징을 분석하였다(박은미, 황빙의, 정태연, 2010). 유형화분석을 통해서 참여자마다 질적으로 독특한 대학생활경험 및 남한사회적응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결 과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경험은 개방코딩을 통해 114개의 개념, 62개의 하위범주, 24개의 상위범주로 범주화되었다(표 2). 이를 축패러다임에 근거하여 모형으로 구축하였고 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범주화

탈북대학생들이 남한사회에서 대학진학을 결정하게 된 동기(인과적 조건)는 ‘주변 환경의 영향’, ‘현실적응욕구’, ‘자아성장욕구’이다. 주변 환경의 영향 범주는 외부로부터 유도된 외적동기적 측면을 갖는 반면, 현실적응욕구와 자아성장욕구 범주는 남한사회에 빠르고 안전하게 정착하고 싶은 욕구이자 내적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탈북대학생은 대학생활을 통해서 ‘정서적 불안정’, ‘문화충격’, ‘사회적 위축’, ‘어려움’, ‘자유감’을 경험하였다(중심현상). 정서적 불안정은 남과북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개인적인 기대가 남한사회 내 현실과 부딪히게 되면서 혼란과 두려움, 불안, 탈진을 느끼는 정서로서 극히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차원의 정서적 특

징이다. 문화충격은 반세기 이상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사회 안에서 살아온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사회현상에 의한 정서적 특징이다. 사회적 위축은 주류사회 즉, 남한사회 및 남한의 대학생들과 비교하며 느끼게 되는 대인관계 및 사회적 맥락의 정서적 특징이다. 어려움은 참여자들이 남과북의 사회문화 차이에 근거한 대인관계, 학업, 학교생활, 문화적인 어려움으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대학생활 내에서 경험하는 현실적 차원의 정서적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자유감은 참여자들이 대학생활을 유지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을 통제하면서 주관적으로 경험한 긍정적 정서의 특징을 갖는다.

참여자들이 대학생활의 중심현상을 경험하는 맥락(맥락적 조건)은 ‘탈북대학생 개인 역사적 배경’, ‘남한사람의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각’, ‘남과북 사회및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참여자들이 저마다 탈북경험, 탈북시기, 제3국체류유무 및 기간, 탈북동행가족의 유무, 남한사회에 대한 환상과 괴리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탈북대학생의 개인 역사적 배경은 적응을 순조롭게도 하고 적응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가령, 가족이 미리 탈북하여 남한에서 거주와 경제적 원조를 준비해 둔 경우에는 브로커를 통해 탈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남한 입국 이후의 적응도 별 탈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기 동안 제3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한 경우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공안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탈북 과정에서 심각한 외상과 탈진을 경험하고, 이것이 남한사회적응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김희경, 2012; 허성호, 박은미, 박준성, 정태연, 2013).

표 2.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범주화

상위범주	하위범주	사례
인과적 조건		
주변 환경의 영향	영향력 있는 주변인의 권유	중국에 넘어왔을 때 아빠께서 공부를 하겠다면 남한으로 오고 아니면 중국에서 시집 가라고 하셨습니다 (참여자5)
현실적응육구	직업적 성공, 남한사회 정착육구, 학벌중심적인 남한, 탈북자 특혜의 활용	· 남한사회에서 학력이 부족하면 월급 등에서 차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참여자16). · 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 못하고 왔는데 우리들에게 대학 혜택이 주어진다 는 걸 알았어요. (중략)이걸 이용해야 되잖아요 (참여자7)
자아성장육구	배움의 육구, 자아실현육구	· 공부하다 중단했잖아요. 어려서 배우는 건 당연하죠 (참여자1) · 공부해서 북한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참여자6)
중심현상		
정서적 불안정	혼란, 두려움, 탈진 불안	· 무질서하다? 왜냐면 뭐가 될지 잘 모르잖아요. 다들 해매는 느낌이었어요. 혼란스럽고, 낯선 환경이니까 어쩔 줄 몰라 했죠 (참여자6). · 생각했던 대학보다 컸고, 아이들이 끼도 많고. 캠퍼스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많았어요. 제가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되었죠(참여자21)
문화충격	이질감, 실망	· 저희 문화와 여기(남한) 애들 문화가 달라서 말이 안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여자11) · 엠터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난장판이더라구요. 대학생활에 대한 환상이 완전 깨졌어요 (참여자12)
사회적 위축	열등감, 소외감	· 대학에서 만난 애들이 레벨이 달라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 위축될 정도로.. 개네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열등감 같은거.. 내가 거기서(북) 왔다고 해서 재가 그러나 싶고. 스쳐가는 말로도 민감해졌어요 (참여자19).
어려움	대인관계, 학업, 언어, 문화, 경제	· 학점관리가 잘 안되는 게 힘들어요 (참여자14) · 교수님, 친구들과의 관계를 만든다는게 너무 어려워요 (참여자19)
자유감	익숙함, 즐거움	· 학업이 처음에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편안하다. 그때처럼 쫓겨가지지 않고 요령이 많이 생겼다 (참여자 23). · 중간고사 공부하는 상황이 힘들지만 즐기게 되요. 힘들지만 이겨내면서 뿌듯해지기도 하구요. 이런 상황이 그냥 너무 좋아요(참여자2)
맥락적 조건		
탈북대학생 개인 역사적 배경	탈북시기, 제3국 체류유무, 탈북동행가족유무, 환상과 괴리	· 중국에서 있었던 안 좋았던 일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라던지 그런것들이 잔상처럼 떠오르면서 괴롭고 머리도 아프고 그랬다 (참여자6). · 남한애들은 배우고 대학을 들어오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북에서 공부하다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모르는 것 투성이예요 (참여자2)
남한사람의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각	부정적 인식, 지식부족	북한에서 왔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신기해하더니 이후에는 그걸 악용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참여자3)
남과북 사회 및 문화적 차이	교육방식, 이념, 언어, 문화차	외래어를 쓰는 것도 소경했고 서양문화를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소경했어요. 북한은 민족주의가 강해요. 우리것을 아끼고 사랑하자는 마음이 있는데 여긴 아니니까요 (참여자14).
중재적 조건		
개인적 자원	긍정적 자기평가, 자기통제, 긍정적 성격, 성적	· 계속 예전 방식을 유지하는 건 새로운 생활을 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방식을 빨리 받아들여야죠 (참여자26). · 대학에서 성적은 괜찮게 나왔어요. 4.38정도요.(참여자4).
개인적 장애	부정적 자기인식, 부정적 태도	· 마음의 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하겠지.. 생각해요(참여자20) ·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열정적으로 나서서 무언가 하려고 시도하지 않죠 (참여자6).

표 2.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범주화

(계속)

상위범주	하위범주	사례
사회적 자원	사회적지지, 사회적 활동	· 학교에 '튜터'라는 게 있다. 남북한학생들을 일대일 결연을 맺어주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튜터) 오빠가 많이 도움을 주었다. 글쓰는 과목, 영어 등 도움을 많이 받았다 (참여자20). · 탈북자동아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정보와 위안을 받죠(참여자15)
남한사회와 북한사회의 비교 및 평가	남한사회에 대한 긍정-부정적 평가, 북한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	· 우리(북)가 남한사람들에게 너무 생소한 존재이잖아요. 중고등학교때 북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중략) (남한친구들) 이해가 되요. 제가 남한에서 태어났다면 저도 그랬을꺼예요(참여자12). ·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중략) 그런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몰라요. 남한은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지만 북은 아니에요., 한국이 훨씬 좋아요. 사람이 살만한 동네니까요 (참여자24).
작용/상호작용		
자기-타인 수용	타인수용	친구들이 제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죠. 제가 북에서 겪었던 것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 해주면 흥미로워하고, 또 제가 모르는 남한의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말해주죠. 애들이랑 굉장히 재밌어요 (참여자7).
	자기수용	나는 북에서 왔고 여기 애들보다 나이도 많아요. 현실을 직시하자 생각하죠. 남한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여기 사람들하고 똑같은 순 없다고 생각해요.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편해요 (참여자14)
자기-타인 회피	타인회피	한국사람들도 혼자 다녀요. 지금은 시간도 없고 내 공부도 해야 되고 한니까 굳이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참여자 25)
	자기회피	내 말투나 억양, 사고방식 등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려고 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략). 사람들이 내가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고 싶어요 (참여자1).
대학생활의 적극적 대처	학습보충을 위한 실질적 노력, 학업문제의 개방과 공유, 경제문제해결	· 신문이랑 책 많이 읽고 노력했는데 내 생각을 옮기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실패하고 싶지 않아 북학 이후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참여자3). · (남한)친구들한테 “나 지금 책읽고 있는데 우리말 읽고 있는 거 맞는데 뭐가 뭔지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나도 못하겠어.” 라고 얘기했어요.”하고 물어보면 친구들도 “나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어려웠어요. 다만 어려운 게 아니었네 하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참여자7).
대학생활의 소극적 대처	학업적 취사선택, 대인관계 취사선택	성적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요, (중략) 팀프로젝트가 있을 땐 팀원에게 나는 못하니깐 아무것도 안했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리라고 말해요. 더 이상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참여자10).
남한문화수용	남한문화 이해	자본주의가 이해가 안된 적이 없다. 보고 배우는 측면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참여자19).
남한문화거부	문화적 취사선택, 문화 거부	· 남한문화는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요. 아니다 싶은 건 안 받아 들이죠 (참여자21). · 노는 문화 이해가 안되요. 술먹고 게임하는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생일파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조잡하다는 생각밖에...(참여자22).
결과		
남한사회적응기술 획득	소속감 획득, 명확한 사회인식, 사회적응 기술획득	내가 좀 더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전에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대학에서 보고 배우면서 느끼게 된 게 많아요. 한국사회가 이렇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에서야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26).
남한사회적응기술 미획득	사회적 부적응	· 대학생활 하면서 경쟁률이 치열한 것 등을 보면서 대학이 한국의 축소판인데 참 힘들구나 생각했죠. 양육강식의 사회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니까요 (참여자5). · 모든 물질문명을 받고 경험할 수 있어서 좋지만, 차이점과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힘든 것 같아요 (참여자18).
자기성장추구	자기인식 명확화, 내적 성장	대학은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공간 같아요. 인간관계를 중시하게 되고, 직업적 목표를 찾으려서 적성을 고려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통해 상황에 대처하는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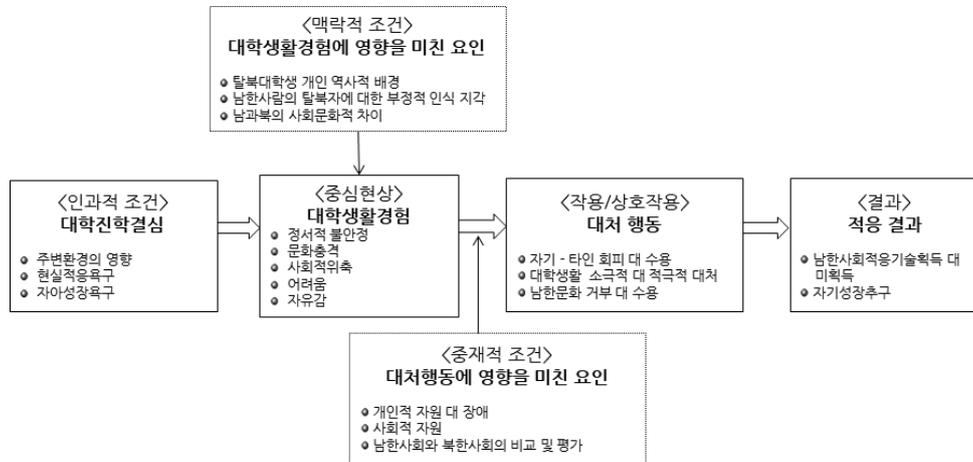


그림 1. 탈북대학생의 대학생생활적응 축패러다임

탈북대학생이 대학생생활에서 경험한 부정적(공정적) 정서를 감소, 유지 혹은 증가시키는 조건 및 태도(중재적 조건)는 ‘개인적 자원’, ‘개인적 장애’, ‘사회적 자원’, ‘남한사회와 북한사회의 비교 및 평가’였다.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 남한사회의 긍정적 평가 및 북한사회의 부정적 평가는 부정적인 정서경험의 감소 및 적극적 대처와 연관이 있었다. 반면 개인적 장애, 북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의 증가 및 소극적 대처와 연관이 있었다.

탈북대학생의 대학생생활 내 부정적(공정적) 정서 경험은 다음과 같은 행동전략으로 이어진다(작용/상호작용전략): ‘자기-타인 회피’, ‘자기-타인 수용’, ‘대학생활의 적극적 대처’, ‘대학생활의 소극적 대처’, ‘남한문화 수용’, ‘남한문화 거부’.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자신이 북한출신임을 숨기거나 밝히지 않고, 남한친구들과 교류하지 않으려는 행동전략은 자기-타인 회피로 명명하였고, 자기의 출신을 밝히고 남한친구들과 교류하는 행동전략은 자기-타인 수용으로 명명하였다. 대학생생활 내 현실적 어

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부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거나 주변 인적 자원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동전략을 대학생생활의 적극적 대처로 명명하였고, 어려운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업량을 줄이는 것, 탈북대학생들과만 제한적인 교류를 맺는 행동전략을 대학생생활의 소극적 대처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수용의 차원에서 남한문화수용 범주는 남한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행동전략이고, 남한문화거부는 남한문화를 제한적으로 취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전략이다.

탈북대학생의 대학생생활적응결과는 참여자들이 대학생의 신분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한 최종적 결과이다. 축패러다임에서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전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지될 때 결과범주로 드러난다. 본 연구의 결과측의 범주는 면접한 당시 시점에서 참여자의 적응 정도에 대한 평가이다. 연구진은 이 응답이 각 참여자의 시간 상 최근의 작용/상호작용전략과 매칭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남한사회적응기술획득’, ‘남한사회적응기술미획득’, ‘자기성장추구’로 구분되었다.

자기성장추구는 지식의 획득과 내적 성장 및 성숙, 자기인식 명확화와 같은 내적 성장에 초점을 두는 반면, 남한사회적응기술획득과 미획득은 사회적 기술 적응에 초점을 둔다. 즉 남한사회적응기술 획득 범주는 대학 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남한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대학 소속감을 통해 남한사회 구성원임을 지각하게 된다. 반면 남한사회적응기술 미획득 범주는 어려운 대학생활을 통해 남한사회적응의 어려움을 선경험하면서 남한사회 적응은 벽차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한다. 대학생활의 부적 경험이 반복되면서 삶에 대한 체념을 하거나 남한사회에서 살

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었다.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정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전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양상을 살펴보고, 대처전략의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정은 총 4단계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단계는 혼란, 사회적 위축, 자기인식, 현실수용으로 명명하였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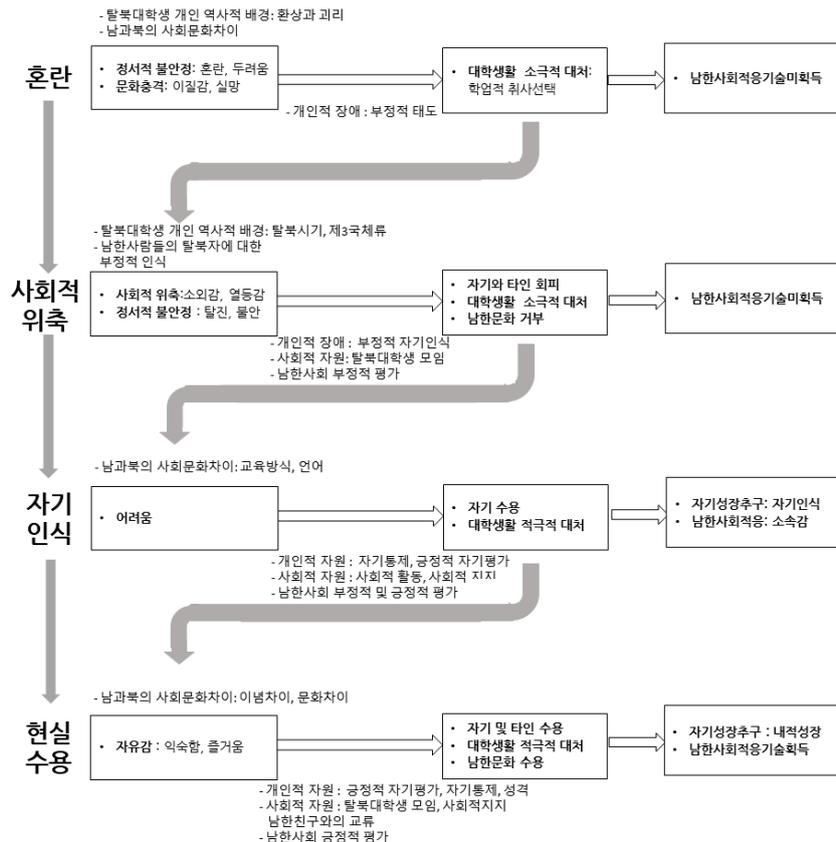


그림 2.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정

혼란 단계. 참여자들이 실제 남한사회와 대 학생활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으로, 남과 북의 실질적인 사회문화차이를 직면하게 되면서 남한과 대 학생활에 대한 환상과 괴리감으로 문화충격과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대 학생활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을 한다. 이 단계에 위치한 참여자들은 최종적으로 남한사회적응기술 미획득을 경험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혼란 단계를 거치며 적응과정을 경험한다.

탈북대학생들은 남한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고 싶은 욕구,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남한사회의 학벌의 중요성, 대학 내 탈북자 대상의 특례입학전형, 주변인의 대학진학 권유, 나아가 배움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경험한 대학의 실제 생활은 그들이 기대했던 배움의 자유, 낭만적인 캠퍼스생활에 대한 환상과 다소 거리가 있었고, 남과 북의 교육제도의 차이, 언어의 차이 등으로 정서적인 불안정을 경험하였다. 대학은 참여자들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유스러운 공간이다. 시간표 짜기, 과제와 학업 등의 다양한 학사관리는 본인 스스로의 몫이다. 강의실은 수업시간마다 바뀌고 담임선생님은 존재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사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강의시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외래어가 남발하고 어려운 이론들은 생소했다. 북한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있었고, 확고한 구조가 있었으며 사회주의체제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질 수 없었다. 참여자들은 대 학생활에 대한 환상과 괴리감, 남과 북의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이질감과 실망, 혼란, 두려움, 탈진, 불안을 복합적으로 경험하였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의문투성이인 남한사회에서 의지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거나 할 수 없다는 소극적 태도를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고에 의해 어려운 강의는 듣기를 포기하거나 학업량을 줄이고, 탈북자들과만 관계를 맺는 소극적 대처행동을 하였다. 이 단계에서 적응의 결과는 남한사회의 적응이 어렵다는 것을 선경험 한 결과이자 대학 내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 단계를 대학 1학년 동안에 경험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단계에 위치해있는 참여자는 18명 1명이었다.

사회적 위축 단계. 탈북대학생들은 남한사람들이 북한과 동일, 탈북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였다. 그들은 탈북대학생모임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지만 남한또래들과 자신의 학업능력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능력부족을 인식하고 남한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자기와 타인을 회피하고 대 학생활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남한사회를 거부하는 대처행동을 하였다. 이 단계에 위치한 참여자들은 최종적으로 남한사회기술미획득을 경험한다.

이 단계의 참여자들은 대 학생활을 경험하면서 남한또래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판적 입장,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보면서 한차례 충격을 받았다. 나아가 또래들과 과제 및 활동을 하며 북한사투리를 듣게 되면 신기해하거나 자신들을 은근슬쩍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게다가 남한또래들과 자신의 실질적인 학업능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남한또

래들은 영어, 논술, 프레젠테이션을 매우 잘하고 익숙하지만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업들이 어렵고 능력도 부족하다. 참여자들은 남한또래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출신과 학업, 대인관계 면에서 열등감과 소외감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따라가기 힘든 학업과 언어능력, 대학생활 전반의 도움을 얻기 위해 탈북대학생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끼리 정서적인 지지도 주고받았다. 그러나 대학에서 자신의 학업적 능력은 떨어지고, 북한출신이라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자신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남한사회가 부정적으로 여겨졌다. 남한사회는 양육강식적 측면이 강하고 계산적이며 이기적이라는 사실이 북한의 정과 의리가 있는 문화와 대조되며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참여자들은 자신이 북한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숨기고, 남한 또래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대처전략을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은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학업만 선택적으로 노력하거나 탈북자들과 제한적으로 교류하는 대처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남한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 단계에서의 적응의 결과는 남한또래들과의 대인관계를 극복하기 어렵고, 대학생활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여긴다. 최종적으로 이 단계에 위치한 참여자는 1, 3, 5, 10, 14, 16, 20, 26번으로 총 8명이었다.

자기인식 단계. 탈북대학생들은 남북한의 사회문화적인 차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는 학업과 대인관계, 경제와 문화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을 지속하면서 탈북대학생모

임, 사회적지지가 확장되었고, 남한이 자신의 실질적인 사회적 주거공간임을 인식하면서 자기를 통제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또한 남한사회를 더 이해하게 된다. 이에 탈북자로서의 자기를 수용하고 대학생활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이 단계에 위치한 참여자들은 최종적으로 자기성장추구와 남한사회적응기술획득을 경험한다.

이 단계의 참여자들은 여전히 남과북의 교육제도의 차이, 이념적 차이, 언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간다. 자신은 북한에서 온 탈북자이고 남한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대학생이므로 주어진 과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레포트 작성과 발표가 어렵지만 완수했던 경험을 쌓아가면서 학업전반의 자신감도 얻고 자신만의 공부 방식을 갖추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민주적이고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남한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 활용하고자 다짐하면서 이 사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였다. 어떤 참여자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가 되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참여자는 탈북자로서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고 싶은 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 단계에서 적응의 결과는 탈북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대학생활 내 학업과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 단계는 대학생활 내 남한학생들과의 교류를 여전히 불편하게 여기거나 탈북대학생들과만 교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축 단계와 유사하지만, 현재 대학생으로서 해야 할 학업 유지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적응의 양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종적으로 이 단계에 위치한 참여자는 6, 8, 11, 12, 13, 15, 17, 21, 22, 23, 24, 25번으로 총 12명이었다.

현실수용 단계. 탈북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이 장기화되면서 대학생활의 자유감을 경험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학생활이 익숙해지고 자유로움을 경험할수록 대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현재 처해진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자기를 통제하려고 노력하였고 좋은 성적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 단계의 주요한 요인은 남한친구들과의 교류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대인관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남한사회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참여자들은 자기와 타인을 수용하고 대학생활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남한문화를 수용하였다. 이 단계에 위치한 적응의 결과는 자기성장추구와 남한사회적응기술획득이다.

이 단계의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을 유지하면서 대학생활의 의미와 남한문화를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과 언어, 전공지식들은 점차 익숙해졌고 반복적인 대학생활은 자연스러워짐을 경험하였다. 또한 남한친구들과 모임이나 과 활동, 조별과제 등을 통해 접촉하게 되면서 남한친구들과 또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적 특징이다. 남한학생들을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만 생각한 참여자들은 남한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신들 역시 왜곡된 시선으로 남한친구들을 바라보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참여자의 대학생활 태도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학교생활에서 겪는 부정적인 경험은 성장배경의 차이와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차이

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 사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대학생활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단계에서 적응의 결과는 자기수용을 넘어 타인과 남한사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단계에 위치한 참여자는 2, 4, 7, 9, 19번으로 총 5명이었다.

탈북대학생의 남한사회적응유형

대학생활경험을 토대로 탈북대학생들이 평가한 남한사회적응을 유형화하기 위해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축 패러다임 가운데 ‘결과’조건에서 생성된 범주를 활용한다. 참여자들에게 대학생활을 경험하면서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자기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내용이 ‘결과’조건에 범주화 되었다. 범주는 ‘자기성장추구’, ‘남한사회적응기술획득’ 대미획득’이다. 대학생활의 대처전략은 대인관계적 측면, 학업적 측면, 문화적 측면으로 구분되었지만 이는 대학생활적응 관련 범주화의 특징인 반면, 결과 조건 내 범주는 참여자들의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자기평가의 결과라는 차이가 있다.

탈북대학생의 남한사회적응유형은 ‘결과’조건에서 드러난 두 가지 차원에 의해 유형화가 가능하다. 1) 남한사회적응기술획득-미획득, 2) 내적성장추구-비추구. 전자의 차원은 남한사회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차원으로,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을 통해 남한사회와 북한사회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남한사회를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후자의 차원은 문화적 수용과 별개로 새로운 정착지인 남한사회에서 자기의

내적 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설명한다. 결과 축에서는 ‘자기성장추구’ 범주는 내적인 성장과 도구적 성장 추구를 모두 포함하는 범주이다. 즉 학위취득을 통해 안정적 직장을 얻는 것은 도구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내적 성장과 성숙은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반영하는 심리적 성숙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자기성장추구 범주를 내적·도구적 성장추구로 구분하여 유형화로 시도하였다. 유형화분석은 각 적응유형의 적응전략 상 내용의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적응유형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본 연구의 논의를 벗어날 수 있다.

결과 축에서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 의하여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방적 내적성장지향형, 동화형, 고립된 내적성장지향형, 혼란형. 각 유형의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개방적 내적성장지향형.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남한사회를 수용하며 내적 성장을 추구한다. 이들은 남한사회 입국 전부터 갖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였다. 이 때 학벌중심적인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 주변인의 조언은 대학진학을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개방적이고 타인을 수용하는 성격을 공통적으로 가

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 그들의 개인 역사적 배경,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대학생활의 부정적 경험 즉, 정서적 불안정, 문화충격, 사회적 위축,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경험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성격과 사고를 유지하며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적응 전략은 자기와 타인을 수용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대학생활 내 실제적 문제를 영역에 따라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남한문화를 수용하고자 노력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와 개방적 성격은 남한사회적응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적응의 의미를 ‘새로운 거주지인 남한사회를 이해하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삶을 사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참여자 7이 전형적인 개방적 자기성장지향형으로 유형화되었다. 참여자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북한을 이탈하였지만 신변의 문제로 인해 어머니와 떨어져 체류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남한으로 입국하게 되었고 중고등학교를 남한에서 보냈다. 학창시절 경험을 통해 대학은 친구들과 같은 나이로 입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검정고시를 통해

표 3.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유형

		남한사회 적응기술 획득			
도구적 성장 추구	동화형	개방적 자기성장지향형		고립된 자기성장지향형	내적 성장 추구
	혼란형				
		남한사회 적응기술 미획득			

대학친구들과 같은 나이로 대학에 입학하였다. 참여자는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하였다. 참여자는 대학에 대한 기대, 환경적 조건, 문화적 차이에 의해 대학생활 초기 정서적 불안정과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이러한 경험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한친구들과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인식을 빠르게 변화시켰다. 참여자는 개방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과 동기들과 허물없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자신의 출신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을 뿌듯하게 여겼다. 배우의 과정을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면서 힘들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동화형.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남한사회적응 기술을 획득하였고, 도구적 성장 추구를 중시한다. 이들은 강한 현실적응욕구에 의해 대학진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남한 내 탈북자의 위치 및 환경조건, 남한의 서구중심적 문화를 실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위축된다. 남한은 북한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고 더 발전되어 있으며 이를 몰랐던 북한이 몽매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남과북의 사회 및 제도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현실문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업을 쫓아갈 수 없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이 생활하는 환경은 남한이고, ‘남한사회가 북한사회보다 월등하므로 새로운 정착지에서 적응하기 위해 남한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맞다’는 인지적 변화를 꾀한다. 따라서 남한사회의 서구중심적 문화와 성공지향적 문화를 적

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되도록 북한출신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신을 노출하지 않는 조건에서 남한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대학 특유의 개인주의적 문화를 수용하면서 제한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습관화 한다. 또한 안정적 취업을 위한 학점 올리기, 영어공부에 매진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다. 이는 다른 남한대학생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반응으로 남한대학생활에 동화된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대학생활적응의 의미를 ‘새로운 거주지인 남한사회를 이해하고 모방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참여자 25가 전형적인 동화형으로 유형화되었다.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 탈북하게 되었고 청소년기의 절반을 중국에서 보냈다. 참여자는 남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생활에서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대학생활을 보냈으나 북한출신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꺼려했고 사투리를 쓰지 않는 점, 북한사람 같지 않은 본인의 외모를 강조하였다. 참여자는 내적성장과 관련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대학은 단지 학위를 따기 위한 의뢰이자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음을 밝히면서 다른 남한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고립된 내적성장지향형.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기술획득을 거부하며 내적 성장만을 추구한다. 현실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싶은 욕구와 자기성장욕구에 의해 대학진학을 결심한다. 그러나 대학입학 이후 남한사회에 존재하는 탈북대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 북한사회와 다른 서구

지향적 남한사회 때문에 대학생활을 통해 정서적 불안정, 사회적 위축,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개인의 긍정적인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기성장을 위한 대처행동을 한다. 즉, 그들은 인내하고 고강도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성격을 가졌고, 이것이 그들의 내적성장을 돕는 자원으로 작용한다. 그들은 경쟁중심적이며 높은 학업수준을 요구하는 학업활동을 잘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열심히 연습과 복습을 하고 다독하는 등 학업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대처 행동을 한다.

반면 그들은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데 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개인적 장애물이다. 즉, 본인은 북한출신이며, 탈북대학생들이 남한사람들처럼 풍족하고 여유롭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남한사회를 더 우월하게 평가하는 그들의 인지적 평가에 기인한다. 그들은 남한문화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 사회에서 자신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대인관계적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북한 출신 동료들과만 제한된 교류를 할 뿐, 남한사람들과 연관된 활동에서 스스로를 철회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참여자들에게서 대학생활적응은 ‘남한사회적응기술획득과 별개로 자기의 내적인 성장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 8이 전형적인 고립된 자기성장지향형으로 유형화되었다. 참여자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 북한을 이탈하였지만 부모님은 곧바로 남한으로 입국하였고 참여자와 동생은 중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아버지의 인도에 의해 남한으로 입국한 이후 학벌중심적인 남한의

빠른 적응욕구와 배움의 욕구에 의해 대학을 진학하였다. 대학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다른 대학현실에 많은 실망을 하였다. 경직된 선후배 문화, 또래와의 문화적 차이를 실감함과 동시에, 남한학생들 역시 참여자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북한에서 태어난 자신은 불행했고 체류과정에서 불안정함을 인식했지만 현재 남한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슬픔과 분노도 느낄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탈북과정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면서 하루하루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참여자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계획을 위해 현재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다.

혼란형. 이 유형의 참여자는 남한사회를 거부하고 내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며 도구적 성장을 추구하지만 쉽지 않다. 참여자 18이 전형적인 혼란형으로 유형화되었다. 참여자는 현실적응욕구와 자기성장욕구에 의해 대학진학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대학생활의 기대와 현실 간 불일치, 그들의 개인 역사적 배경, 교육과 정치 문화적 차이를 실감하면서 높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감과 사회적 위축, 어려움 등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심리적 측면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즉, 탈북대학생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남한또래들과의 실제적인 비교 등에 의해 자신이 탈북대학생임을 숨기는 행동패턴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학업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낙제를 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행

동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한사회는 자신들을 옹아매는 북한사회만큼이나 부정적인 사회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유형의 참여자는 남한사회적응의 한 가지로 소속감 획득이라는 범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들은 대학 생활에서 혼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자원이 대학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에게 대학생활적응은 ‘남한사회에서 그들에게 제공해주는 유일한 소속감 자원’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하여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현상을 분석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알아보았다. 대학생활적응과정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대학생활경험을 토대로 한 남한사회적응의 유형화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패러다임에서 드러난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경험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탈북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중심현상 즉, 주요 정서는 정서적 불안정, 문화충격, 사회적 위축, 어려움, 자유감 이었다. 이러한 정서들은 남한학생들과의 대인관계, 학업, 문화와 관련지어 복합적으로 경험되었다. 관계, 학업, 문화차로 인한 문화충격, 정서적 불안정, 실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남한사회 및 또래들과의 사회비교를 통해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였다. 탈북대학생의 이러한 정서경험은 여러 질적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김진미 2008; 백영옥, 유조안,

2011; 이해경 2003; 조영아, 전우택, 2004) 탈북대학생의 복합적인 정서경험은 생활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대학생활적응에 압도적인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박은미, 박준성, 정태연, 2009).

그러나 모든 탈북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탈북대학생의 개인 역사적 배경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강도가 다르다. 아동 및 청소년전기에 남한으로 입국하여 남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었던 경험, 가족동반입국, 대학 내 동기들과 나이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참여자 7, 9, 19). 반대로 탈북과정 시 외상적 경험(탈북도중 공안의 위협, 폭행, 탈북과정에서 죽음 목격 등, 참여자 6), 아동청소년전기 탈북으로 안정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험(참여자 2, 8, 6, 25)은 대학생활의 부정적 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생활문제를 대처하는 행동전략 역시 남한학생들과의 대인관계적 측면(자기-타인수용), 학업적 측면(대학생활 대처), 문화적 측면(남한사회수용)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구분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뿐만 아니라 남한학생, 재한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차원과도 유사하다(박은미, 황빙의, 정태연, 2010). 그러나 탈북대학생이 처한 문화적 적응은 남한학생들의 대학문화적응을 넘어서는 남과북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이해해야 하므로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남한학생이나 유학생의 적응과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가령, 북한의 경제체제와 전혀 다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처음 경험하면서 돈의 가치와 화폐단위에 대한 무지, 북에서의 굶주림에 대한 보상으로서 무절제한 소비행태가 나타나고 이

것이 결과적으로 남한사회부적응의 원인이 됨을 보여준다(천혜정, 서여주, 2014). 또한 탈북자들은 북한문화의 영향으로 집단의 목표를 위해 공동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면서, 대학의 자유로움과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남한의 청년들을 이해하는 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이재철, 2013). 실제 본 연구의 참여자 역시 남한학생들을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반면 북한사람들은 정이 많고 의리가 있다고 대조적으로 평가하였다(참여자 2, 5). 이러한 평가는 체제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개인적 오해일 수 있고 이것이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일 수 있다.

탈북대학생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긍정적인 성격, 낙관성, 긍정적 사고방식, 자기통제, 좋은 성적을 받은 경험과 같은 개인적 자원과 탈북대학생모임, 다양한 대학 내 사고모임, 튜터링서비스, 장학재단, 교회 등은 대인관계, 학업, 문화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다수의 탈북대학생들은 탈북대학생모임에 필수적으로 가입 및 활동하며 그들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였다. 많은 탈북대학생들이 남한학생들과의 교류를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탈북대학생모임은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작동하였다. 남한사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긍정적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남한사람들의 경쟁지향적 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한 이해, 통일에 무관심한 남한사람에 대한 이해, 남한학생들과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했다. 남북한 문화이질성을 경험할 때 남한문화지향성을 구사하는 것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심리적 적응수준을 높일 수 있다(채정민, 이종환, 2004).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 한 이상 북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거주지는 남한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사회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남한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한 통합논의가 필요하다. 남한사람의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각은 탈북대학생 대다수의 사회적 위축경험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는 과정분석결과의 사회적 위축 단계에서 대학생활경험의 핵심범주이기도 하다. 많은 참여자들이 남한사회는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탈북자와 같은 소수자들을 신기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탈북대학생들이 남한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출신을 숨기거나 조선족으로 속이며 남한학생들과 교류하지 않는 대처행동의 주요 요인이다. 자신의 출신을 숨기는 대처전략은 조선족, 다문화이주여성, 유학생과 달리 독특한 대처행동이다(박은미, 황빙의, 정태연, 2010; 박준성, 허성호, 전미연, 정태연, 2015; 백영옥, 유조안 2011). 탈북대학생은 한민족으로 남한사람들과 외모의 차이가 없고 공동 언어를 사용하므로 북한출신을 밝히고 싶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인의 다문화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탈북자, 결혼이주민, 동남아인을 향한 부정적 태도, 서구인들을 향한 긍정적 태도를 갖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김동수, 김도환, 정태연, 2011). 특히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경우 부정적 정서가 높고 긍정적 정서는 낮으며 연민 정서를 높게 느낀다는 연구결과를 주목해야 한다(양계민, 정진경, 2005). 이는 북한이탈주민을 신

되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면서 불쌍하게만 생각하는 태도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적응주체자 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의 소수자를 대하는 태도도 중요함을 시사한다(Jasinskaja-Lahti, Liebkind, Horenczyk, & Schmitz, 2003; Kurman, Eshel, & Sbeit, 2005; Persky, & Birman, 2005).

둘째,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의 정서경험과 그에 따른 대처전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발견하기 위해 과정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혼란’, ‘사회적 위축’, ‘자기인식’, ‘현실수용’ 단계로 적응이 진행됨을 발견하였다.

혼란 단계의 핵심적 경험은 환상과 괴리에 의한 문화충격으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실제 몇 년 사이 대학을 중도 탈락한 탈북대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중도탈락의 가장 큰 이유가 전공 불만족과 경제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유시은 등, 2013). 많은 탈북대학생들이 남한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부하기 쉬운 과(예, 중국어과)를 선택하거나 주변 탈북친구들이 있는 과를 선택하여 진학하고 있었다.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을 경우 중도탈락 할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위축 단계의 특징은 남한사회의 북과 탈북자를 향한 부정적 시선에 대한 탈북대학생의 압박과 남한또래와의 실제적인 능력치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으로 위축됨으로서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학업적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다. 남한사회의 탈북자를 향한 차별적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해 섞인 시선은 상호 간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김혜숙 등, 2011). 집단 간 접촉을 통해 선입견이 상쇄될 수 있다는 심리학적 연구결과는 상당부분 축적되어 있고(Gaertner, Dovidio, Anastasio, Bachman, & Rust, 1993; Hewstone & Brown, 1986; Kane Argote, & Levine, 2005), 본 연구결과의 현실수용 단계 역시 남한친구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탈북대학생들의 남한 학생에 대한 선입견이 상쇄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활초기부터 남북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대학 내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참여자의 D대학교는 남북한 학생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남한학생과 탈북대학생들이 쌍방의 혜택을 보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유시은 등 2013).

자아인식의 단계의 특징은 탈북한 이상 북한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므로 남한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방략을 세우기 시작한다. 참여자들은 대학생이므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고 학위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단계에 위치한 참여자들은 하루가 뻑뻑할 정도의 공부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매일 아침 도서관에 나와서 과제를 하거나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개인학습을 실시하고 있었다.

마지막 현실수용의 단계는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매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탈북자로서의 자신을 수용하고 신분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은 남한학생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도록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실제 남한학생들과 친분 있는 교류를 하는 이 단계의 참여자들은 남과북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고,

자신의 남한에 대한 태도 역시 왜곡되어있음을 수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정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던 이주민의 적응과정과 유사하다. 즉, 처음 문화를 경험할 때의 접촉 단계, 주류문화와의 갈등단계, 문화적 적응전략을 선택하는 해결단계로 설명하는 문화적응 모델의 경향성과 유사하다(Berry & Sam, 1997). 또한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정은 변인 중심적 연구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적응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적응이 시간에 따라, 적응에 필요한 자원과 장애, 적응주체자의 사회 및 적응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은 모든 참여자들이 4단계를 순서대로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근거이론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방법론에서는 각 개념에 대한 범주가 포화될 때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참여자의 적응과정은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0). 또한 본 연구는 종단연구가 아니므로 모든 참여자들이 동일하게 4단계를 거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참여자에 따라 단계를 건너뛰기도 하고 혹은 1단계가 아닌 2단계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개인마다 대학생활적응의 양상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개인마다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에 자신의 삶에 맞게 적응해가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의 연장선상에서 유형화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분석은 각 참여자들이 적응과정 선상에서 채택한 적응전략, 현재의 적응상태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대부분 참여자는 4단계의 적응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단일하게 단계적인 적응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유형화 분석이 가능하다(Strauss & Corbin, 1990). 유형화 분석은 대학생활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남한 사회적응을 자기평가한 범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남한사회적응기술획득-미획득, 내적 성장 추구-도구적 성장 추구(내적 성장 비추구)의 차원에 따라 4가지 유형, 혼란, 동화, 고립적 내적성장지향, 개방적 내적성장지향으로 유형화되었다. 각 적응 유형 간 추구하는 적응전략은 다양하다. 가령, 동화형 탈북대학생들은 남한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고립된 내적성장지향형 탈북대학생들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내적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한사회적응을 추구하는 것과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 어떠한 적응 전략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양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의 의의는 저마다 적응을 위한 방향을 가지고 문제를 대처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

개인 내 적응도 주제별 다른 적응수준을 보였다. 예를 들어, 동화형 탈북대학생들은 학업 활동에서는 해결중심적인 긍정적 대처반응을 보이는 반면, 대인관계에서는 신분노출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남한의 대학생들과 제한적으로 어울리는 경향을 보이는 소극적 대처와 자본주의 남한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상반되는 전략을 펼친다. 반면 고립된 내적 성장 지향형 탈북대학생의 경우는 북한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만 제한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학업적인 측면에서 소극적 대처와 적극적 대처를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으며 남

한사회의 민주주의적 특성을 덜 수용하려는 특징을 갖는다. 개방적 내적성장지향형은 대인관계, 학업, 문화적응을 위해 일관적으로 적극적 대처를 활용하고 나아가 내적성장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적응의 이상적인 유형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유형화가 제시하는 점은 어떠한 유형이 더 적응에 중요한가에 대한 측면보다 대다수의 탈북대학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을 능동적으로 펴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권나혜, 2005). 가장 부정적인 유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혼란형마저도 남한사회 내 대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통해 적응의 의미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하였다. 대학에서 실제적인 적응을 잘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와 무관하게 탈북대학생에게 남한사회 내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거(예, 학생증, 대학에 소속되어 있음)는 남한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떠한 적응유형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질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야 한다.

탈북자를 위한 적응정책들은 일방적인 동화압력을 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대학입학제도만 하더라도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대학진학만을 원조하였을 뿐, 대학생활을 통해 경험하게 될 교육, 문화, 제도적인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들의 마련은 미흡하다(최운진 외, 2013). 이주민의 정체성 발달이론에 의하면 이주집단의 정체성은 짧은 시기에 변화할 수 없으며 주류(host)집단과 이주집단의 상호작용 및 상호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Bourhis, Barrette, & El-Geledi,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대학생들은 주류문화의 일방적인 동화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활과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적응양상을 보였다. 탈북대학생들은 한국의 동화 압력에 맞서 그들의 지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장선하, 2008).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에게 남한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심리적 자기통제, 직접적인 사회경험, 유년기의 남한사회 경험, 사회적 관계 유지, 경제적 능력과 지식획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들은 인터뷰에서 남한사회적응에 있어서 한 가지 자원 즉 심리적 자원 혹은 경제적 자원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문화적응을 위해서는 심리적, 발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며, 어떠한 자원이 더 중요한가의 판단은 개인차가 존재한다. 적응을 위한 방략으로 사회기술습득을 중시할 수도 있고 내적성장을 중시할 수도 있다. 오히려 다양한 적응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문화적응유형화의 다양성의 가치를 주장한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Word & Kennedy, 1994).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응의 정석을 제공해주고 그를 따를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적응전략에 의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응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 기술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공동체 등에서 그들을 위한 적응지원서비스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특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내적성장육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서비스, 사회참여의 기회 등을 용이하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전담기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식주뿐만 아니라 취업알선, 교육, 사회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의 제도를 실시 및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백영옥, 유조안, 2011). 그러나 여전히 주류사회시민들의 탈북자 대한 인식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다(양계민, 정진경, 강혜원, 2008). 이는 사회과학자들이 꾸준히 연구함으로써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함의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경험과 남한사회적응을 질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적응양태를 체계적으로 탐색하였고 시간에 따라 적응전략이 달라지며 사람들마다 다양한 적응방식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탈북대학생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론 가운데 체계적인 분석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근거이론방법론을 활용하여 추파러다임, 과정분석, 유형화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Flick, 2014). 이러한 현상의 보고는 점차 다양한 집단과 인종이 더불어 살아가는 한국사회에서 주류사회의 시민들과 소수자간에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가 탈북대학생에게만 나타나는 특유한 현상인지, 아니면 자발적 이주민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적응양상인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다문화집단과 차이가 존재한다. 이들은 다른 민족 집단과 달리 양 사회 간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남한으로 이주하였다. 즉, 한번 북한을 이탈한 사람들은 북한으로 귀환할 수 없다. 따라서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문화적응적

과업을 갖는다. 또한 남한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치적, 사상적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수한 배경을 가지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자발적 이주민들의 적응양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구분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 집단이 세대 간 다양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세대 간의 격차가 매우 큰 사회로 여겨지고 있다(Inglehart, 1990). 북한사회 역시 약 20여년동안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탈북자의 세대 간 차이도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탈북자집단 가운데 성인기에 북한의 경제위기를 경험한 중장년 세대와, 청소년기에 경제위기를 경험한 청년 세대의 인지 및 행동적 측면의 적응방식은 상이한 태도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세대 별 탈북자 집단 간 적응양식의 보편성과 특수성, 나아가 다문화집단과 탈북자 집단의 문화적응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 진전을 위해 유용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희석 (2007). 새터민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체계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나혜 (2005). 남한 내 탈북이주민 대학생의 정체성과 생활경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금명자 (2015). 한국심리학회지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

- 지 게재논문 분석(2000 ~ 2013).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541-563.
-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탈북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6, 295-308.
- 길은배, 문성호 (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동수, 김도환, 정태연 (2011). 외국인에 대한 한국대학생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1-23.
- 김진미 (2008). 탈북 대학생들의 적응 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아 (2006). 새터민의 적응유연성 척도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35-50.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 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 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김희겸 (2012). 새터민대학생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 (201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유형에 따른 복합 PTSD와 PTSD 증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4), 1003-1022.
- 박은미 (2009). 새터민 대학생의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 박준성, 정태연 (2009). 새터민 대학생의 적응에 스트레스 및 중재변인이 미치는 효과. 스트레스연구, 17, 285-293.
- 박은미, 황병의, 정태연 (2010).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205-223.
- 박준성, 허성호, 전미연, 정태연 (2015). 남한에서 조선족 직장여성의 문화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1), 21-43.
- 백영옥, 유조안 (2011).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생활: 진학 및 적응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효숙, 왕영민, 박성철, 고인곤, 정재관, 주형민, 류창진, 송창용, 김화순, 박상민, 노진원, 백영옥, 유시은, 이강주, 김현설, 박민규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 심윤조 (2012). 심윤조 의원 국회감사 자료, 2012년 9월 10일 기준.
-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97-115.
- 양계민, 정진경, 강혜원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 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시은, 배형준, 조명숙, 김경희, 최영실 (2013). 탈북대학생 중도탈락 원인 및 대안.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윤인진 (2000).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와 자원봉사. 탈북동포이해의 기본교재. 서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윤인진, 송영호 (2013). 북한이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민족의식과 다문화의식. *재외한인연구*, 30, 7-40.
- 윤지혜, 오영림 (2010). 탈북청소년의 외상이후 성장 체험연구 - 탈북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 49-82.
- 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 (2007).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재철 (2013).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정부신뢰 및 정부신뢰 결정요소 분석. *정치정보연구*, 16(2), 115-143.
- 이혜경 (2003). 북한 이탈주민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체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선하 (2008). *한국사회의 탈북이주민 국민 만들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수현 (2010). 이산민의 초국가성과 다층적 정체성: 중국 위해의 한국 화교에 대한 사례 연구. *현대중국연구*, 11, 263-297.
- 장임숙, 이원일 (2011). 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이주인권 정책에 대한 태도. *지방정부연구*, 15(4), 177-199.
- 장창호 (2000).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적 사업적 고찰*.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병호 (2004). 탈북 이주민들의 환상과 부적응: 남한사회 인식혼란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0, 33-62.
- 정옥분 (2000). *성인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영아, 전우택 (2004).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167-186.
- 채정민, 이종한 (2004).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이질성.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2), 79-101.
- 천혜정, 서여주 (2014).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소비행위의 의미.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0(3), 109-135.
- 최대석, 조은희 (2010). 탈북대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14, 215-240.
- 최상진, 한규석 (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23-144.
- 최윤진, 나달숙, 김윤나, 한순영, 손진희 (2013). *탈북청소년 교육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통일부 (2016).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통계자료*. 서울: 통일부.
- 한나, 이승연 (2015).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의 방향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485-512.
- 한덕웅, 점검구, 이창호 (1991). 한국 대학의 생활환경 변화와 대학생생활 적응. *학생생활연구*, 9, 5-170.
- 허성호, 박은미, 박준성, 정태연 (2013). 탈북 새터민 대학생의 사회적응. *스트레스연구*, 21(3), 193-202.
- 홍정욱 (2010). *탈북대학생 설문조사 보고서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I,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 Atkinson, D. R., Morton, G., & Sue, D. W. (1998).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San Francisco, CA: McGraw-Hill.
- Baker, R., McNeil, O., & Siryk, B. (1985). Expectation and reality in freshman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94-103.

- Berry, J. W. (1990). The role of psychology in ethnic studies. *Canadian Ethnic Studies*, 12, 8-21.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Chun, P. Balls-Organista, & G. Martin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p. 17-3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Berry, J. W., & Sam, D. 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ume 3*(2nd ed) (pp. 291-326). Boston: Allyn & Bacon.
- Bourhis, R. Y., Barrette, G., & El-Geledi, S. (2009). Acculturation orientations and social relations between immigrant and host community members in California.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40, 443-467.
- Bruner, J.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lick, U. (2014).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Sage.
- Gaertner, S. L., Dovidio, J. F., Anastasio, P. A., Bachman, B. A., & Rust, M. C. (1993). The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 Recategorization and the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4(1), 1-26.
- Glauser, B. B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ldine.
- Glesne C. (2003).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3/E*.
- Hewstone, M. E., & Brown, R. E. (1986). *Contact and conflict in intergroup encounters*. Basil Blackwell.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sinskaja-Lahti, I., Liebkind, K., Horenczyk, G. & Schmitz, P. (2003). The interactive nature of acculturation: perceived discrimination, acculturation attitudes and stress among young ethnic repatriates in Finland, Israel and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 79-97.
- Kane, A. A., Argote, L., & Levine, J. M. (2005). Knowledge transfer between groups via personnel rotation: Effects of social identity and knowledge qualit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6(1), 56-71.
- Kurman, J., Eshel, Y., & Zehavi, N. (2005). Personal and group acculturation attitudes and adjustment: Russian and Ethiopian immigrants in Israel.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5, 959-974.
- Murphy, H. B. M. (1997). Migration, culture and mental illness. *Psychological Medicine*, 7, 677-684.
- Persky, I., & Birman, D. (2005). "Ethnic" identity in acculturation research: A study of multiple identities of Jewish refugee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36, 1-16.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Ward, C., & Kennedy, A. (1994). Acculturation strategie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ocultural competence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8, 329-343.

1차원고접수 : 2017. 05. 15.

수정원고접수 : 2018. 03. 01.

최종게재결정 : 2018. 04. 02.

Adaptation of Undergraduates from North Korea to Academic and Social Life in South Korea

Eunmi Park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study examined the phenomenon of academic adjustment in undergraduates from North Korea, who are continuously growing in South Korean society from a cultural adaptation perspective. In particular, it explored the major variables affecting academic experiences, strategies for coping and adaptation. Next, the academic adjustment process of undergraduates from North Korea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Lastly,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type-setting of social adjustment in South Korea, based on academic adjustment experience of undergraduates from North Korea. In study,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26 participants and their response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Grounded theory developed by Strauss & Corbin(1990).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core feelings participants experienced in the course of academic adjustment in South Korea could be grouped into 5 categories: *Emotional unbalance, Culture shock, Alienation, Difficulties and Sense of freedom*. And their action response strategies were divided into *acceptance versus avoidance of self-other, active versus passive response from academic life, and accept versus refusal acculturation to South Korea*. Further, analysis of processes undergraduates from North Korea went through in their academic adjustment to South Korea revealed that there were four phases in adjustment: *Confusion, Withering, Self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self identity in South Korea*. Moreover,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four type of acculturation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dimensions of social adaptation skills acquisition and pursuit of inner-maturation: *Confusion, Assimilation, Isolated inner-maturation, Socially connected inner-maturation*. Finally,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relevant theories and research, and their implications for cultural adjustment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suggested.

Key words : *acculturation, undergraduates from North Korea, grounded theory, academic adjustment, qualitative research.*